

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①	⑤	②	⑤	④
6	7	8	9	10
③	②	④	⑤	④
11	12	13	14	15
④	⑤	④	①	①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④	①
21	22	23	24	25
④	①	②	②	④
26	27	28	29	30
⑤	⑤	④	①	④
31	32	33	34	35
①	③	⑤	①	②
36	37	38	39	40
①	①	③	③	⑤
41	42	43	44	45
②	③	①	⑤	③
46	47	48	49	50
⑤	⑤	③	⑤	②

01 -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 ②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 ③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
- ⑤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정답> ①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는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가) 시대의 대표적 유물 중 하나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유적에서는 곡물 등을 가공하는 데 사용한 갈돌과 갈판도 출토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빗살무늬 토기', '갈돌과 갈판'이라는 표현에서 주어진 '(가) 시대'는 신석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은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원시적 수공업).

오답 해설>

- ②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 ③ 명도전, 반량전 등의 (중국) 화폐가 유통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만든 것 역시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 ⑤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한 것도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참고로 이때 철제 무기도 만들어 사용하였다(이로써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만 사용).

02 - 고조선

2.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좌장군은 (가)의 패수 서쪽에 있는 군사를 쳤으나 이를 격파해서 나가지는 못했다. …… 누선장군도 가서 합세하여 왕검성의 남쪽에 주둔했지만, 우거왕이 성을 굳게 지키므로 몇 달이 되어도 함락시킬 수 없었다.
- 마침내 한 무제는 동쪽으로는 (가)을/를 정벌하고 현도군과 낙랑군을 설치했으며, 서쪽으로는 대완과 36국 등을 병합하여 흉노 좌우의 후원 세력을 꺾었다.

- 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② 신지, 읍차라 불린 지배자가 있었다.
- ③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 ④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⑤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정답> ⑤

위의 사료에 '좌장군은 (가)의 패수 서쪽에 있는 군사를 쳤으나 이를 격파해서 나가지는 못했다. …… 누선장군도 가서 합세하여 왕검성의 남쪽에 주둔했지만, 우거왕이 성을 굳게 지키므로 몇 달이 되어도 함락시킬 수 없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좌장군'과 '누선장군', '패수'와 '우거왕' 등의 표현에서 주어진 자료는 한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최초로 맞서 싸운 기원전 109년의 상황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사료에는 '마침내 한 무제는 동쪽으로는 (가)을/를 정벌하고 현도군과 낙랑군을 설치했으며, 서쪽으로는 대완과 36국 등을 병합하여 흉노 좌우의 후원 세력을 꺾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한에 의해 고조선의 왕검성이 함락되어 고조선이 멸망한 기원전 108년의 상황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대신, 박사 등의 관직도 설치).

오답 해설>

- 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연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매년 10월).
- ② 신지, 읍차라 불린 지배자가 있었던 나라는 삼한이다.
- ③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한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와 고구려이다(1책 12법).
- ④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03 - 5세기 말 삼국의 경쟁(혼인 동맹)

3.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②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 ③ 김유신이 비담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 ④ 영양왕이 온달을 보내 아단성을 공격하였다.
- ⑤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 '자네 들었는가? 백제의 동성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셨다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들었네. 우리 마립간께서 이별찬 비지의 딸을 보내신다고 하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백제의 동성왕(재위 479-501, 제24대)과 신라의 소지마립간(재위 479-500, 제21대)이 493년에 맺은 혼인 동맹*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제2차 나제 동맹이라고도 하며, 당시 백제 동성왕의 이름은 모대(牟大)였다(말다(末多) 또는 마제(摩帝)라고도 부름).

백제와 신라가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는 등(475, 장수왕 63) 5세기 후반 들어 백제와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신라의)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병합한 것은 재위 19년인 532년의 일이다.
 - ③ 김유신(595~673)이 비담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한 것은 647년(선덕 여왕 16) 정월의 일이다.
 - ④ 고구려의 영양왕이 온달(?~590)*을 보내 아단성을 공격한 것은 590년(영양왕 원년)의 일이다.
- *온달은 고구려 평원왕 대(재위 559-590, 제25대)과 영양왕 때(재위 590-618, 제26대)의 명장으로, 영양왕 원년인 590년에 영양왕에게 자청하여 신라 진흥왕에 의해 복속된 죽령(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 사이에 있는 고개) 이북의 땅을 회복하겠다고 자청하여 출전하였다가 아단성(지금의 서울 아차성) 아래에서 전사하였다.
- ⑤ (태종 무열왕) 김춘추(604~661)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성사시킨 것은 648년(진덕 여왕 2)의 일이다.

04 - 대가야

4.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령하여 (가) 을/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 사다함은 나이가 15~16세였는데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 (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병사들의 습격에 놀라 막아내지 못하였고, 대군이 승세를 타서 마침내 멸망시켰다.

- ①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다.
- ②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된 목적을 알아본다.
- ③ 중앙 관제가 3성 6부로 정비된 계기를 파악한다.
- ④ 최고 지배자의 호칭인 이사금의 의미를 검색한다.
- ⑤ 고령 지역이 연맹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정답> ⑤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령하여 (가)을/를 공격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때 사다함은 나이가 15~16세였는데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 (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병사들의 습격에 놀라 막아내지 못하였고, 대군이 승세를 타서 마침내 멸망시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라의 장군이자 정치가인 이사부(?~?)와 화랑 사다함(?~?)이 멸망시킨 나라는 '대가야'이다 (562, 진흥왕 23).

대가야는 경북 고령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고령 지역이 연맹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다(후기 가야 연맹, 5세기 초부터 성장).

오답 해설>

- ①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것은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인 668년 8월의 일이다. 이에 고구려는 9도호부 42주 100현으로 나뉘지고, 당의 장수 설인귀(614~683)가 도호부사로 임명되었다.
- ②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된 것은 백제 무령왕 대(재위 501-523, 제25대)의 일이다.
- ③ 중앙 관제가 3성 6부로 정비된 국가는 발해이다. 발해 문왕 대(재위 737-793)의 일이다.
- ④ 최고 지배자의 호칭이 이사금이었던 국가는 신라이다. 3대 유리이사금(재위 24-57)에서 16대 흘해이사금(재위 310-356)까지 사용되었다.*

*이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른 것이고, 『삼국사기』에 의하면 3대 유리이사금에서 18대 실성이사금(재위 402-417)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05 - 제1차 여·당 전쟁

5. 밑줄 그은 '전투'가 벌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554	589	612	642	668	698
(가)	(나)	(다)	(라)	(마)	
관산성 전투	수의 중국 통일	살수 대전	보장왕 즉위	고구려 멸망	발해 건국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④

맨왼쪽 말풍선에 '이곳은 높은 성벽과 치를 갖춘 백암성이야'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당의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여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지'라는 말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병력의 열세와 내부의 분열로 함락되었지만, 그 뒤에는 안시성이 버티고 있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백암성'과 '안시성', '당의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였다는 표현에서 주어진 말들은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침입한 제1차 여·당 전쟁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645년). 당시 고구려 서쪽의 주요 방위성으로 '요동성, 개모성, 백암성, 안시성 등이 있었다.

연표에서는 보장왕(재위 642-668, 제28대)이 즉위한 642년에서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사이인 '(라) 시기'에 해당한다.

06 - 백제 부흥 운동

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백제의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하여 항복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하였으므로, 유수(留守) 유인원이 당과 신라 사람들을 보내 이를 쳐서 쫓아냈다. …… 당 황제가 좌위중랑장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삼았다.

(나)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법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궤와 별수(別帥) 두상과 부여융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왜국 군사를 만나 …… 그들의 배 4백 척을 불살랐다.

- ①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 ②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 ③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 ④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하였다.
- ⑤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으로 책봉되었다.

정답> ③

(가)에 '백제의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하여 항복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하였으므로, 유수(留守) 유인원이 당과 신라 사람들을 보내 이를 쳐서 쫓아냈다. …… 당 황제가 좌위중랑장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직후의 일이다(660.9). 참고로 웅진도독으로 온 왕문도(?~660)는 부임 직후인 9월에 신라 태종 무열왕(재위 654-661, 제29대)에게 당 고종(재위 649-683, 제3대 황제)의 칙서와 하사품을 전하다가 의례를 채 마무리짓지 못하고 병사하였다.

(나)에는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법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궤와 별수(別帥) 두상과 부여융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왜국 군사를 만나 …… 그들의 배 4백 척을 불살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나당 연합군과 나당 연합군과 백제 부흥군 사이에 백강 전투가 벌어진 것은 663년 9월의 일이다(백제 부흥 운동). 참고로 백강은 지금의 금강 하구(또는 동진강 하구)로 추정하고 있다.

복신(?~663)과 도침(?~661)이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왜국에 사신을 보내 군사 지원과 함께 부여풍의 귀국을 청한 것은 660년(태종 무열왕 7) 10월의 일이다(의자왕의 다섯째 아들인 부여풍이 일본에서 5천여 지원군과 함께 귀국한 것은 이듬해인 661년 9월).

오답 해설>

①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설인궤]을 격파한 것은 676년(신라 문무왕 16) 11월의 일이다(기벌포 전투(해전)). 이로써 신라는 당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였고, 삼국을 실질적으로 통일하였다. 참고로 매소성** 전투는 그 전해인 675년 9월에 있었다.

*기벌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일대를 일컫던 명칭으로, 금강 하구에 해당한다. 사비성을 지키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다.

**매소성: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 있어 대전리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한탄강 부근에 있는 천험의 요새로 매초성이라고도 한다.

②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시킨 것은 642년(의자왕 2) 8월의 일이다.

④ 계백(?~660)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한 것은 660년 7월의 일이다.

⑤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으로 책봉된 것은 674년(문무왕 14) 9월의 일이다.

07 - (통일) 신라의 경제 모습

7. 밑줄 그은 '시기' 신라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일본의 귀족들이 신라에서 들어온 물품을 매입하고자 그 수량과 가격을 기록하여 일본 정부에 제출한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라는 문서입니다. 통일을 이루고 9주 5소경을 설치한 이후의 시기에 일본과 교역하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② 조세 수취를 위해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다.
- ③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군 등에 수출하였다.
- ④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우경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 ⑤ 수도에 도시부(都市部)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시장을 관리하였다.

정답> ②

'이것은 일본의 귀족들이 신라에서 들어온 물품을 매입하고자 그 수량과 가격을 기록하여 일본 정부에 제출한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라는 문서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통일을 이루고 9주 5소경을 설치한 이후의 시기에 일본과 교역하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라가 통일을 이루고 (지방 행정 제도로) 9주 5소경을 설치한 것은 신문왕 5년인 685년의 일이다.

조세 수취를 위해 촌락 문서를 작성한 것은 (통일) 신라 시대의 일이다. 지금의 충북 청주 부근인 서원경의 4개 촌을 대상으로 작성된 신라 촌락 문서는 노동력 동원과 세금 징수를 위해 작성되었다(3년마다 작성). 작성된 시기로는 755년설(경덕왕 14), 816년설(헌덕왕 8), 876년설(헌강왕 6) 등 여러 설이 있다.

오답 해설>

①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한 시기는 고려 시대이다.

③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군 등에 수출한 나라는 변한이다(기원전 1세기~기원후 3세기경).

④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우경*을 처음으로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개는 알 수 없으나 철제 농기구가 도입된 초기 철기 시대로 추정된다. 우경이 우리나라 사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신라 지증왕 3년인 502년의 일(즉 사료상의 우경 시작 기록, "주주(州主)와 군주(郡主)에게 각각 명하여 농사를 권장케 하였고, 처음으로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지었다." 『삼국사기』). 로,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우경이 실시된 것이 이 시기(6세기)에 이르러 쟁기, 호미, 괭이 등 철제 농기구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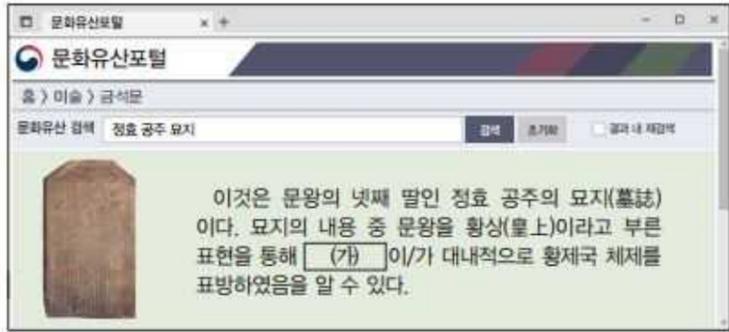
* 우경(牛耕):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일

⑤ 수도에 도시부(都市部)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시장을 관리한 시기는 백제의 사비 시대*이다(538~660). 22부의 중앙 관청 가운데, 외관 10부에 속한 관청으로, 상업과 교역, 시장 관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내관 12부). 시부(市部)라고도 하였다.

*사비 시대: 백제의 제26대 왕인 성왕(재위 523-554)이 사비(지금의 충남 부여)로 천도한 538년부터 백제가 멸망한 660년(의자왕 26, 제31대)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08 - 발해

8.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② 정사암 회의를 개최하였다.
- ③ 최고 행정 관서로 집사부를 두었다.
- ④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 ⑤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정답> ④

'이것은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 공주의 묘지(墓誌)이다. 묘지의 내용 중 문왕을 황상(皇上)이라고 부른 표현을 통해 (가)이/가 대내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표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발해임을 알 수 있다.

발해는 (최고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귀족 자제에게 유교 경전 교육).

오답 해설>

- ① 기인 제도를 실시한 국가는 고려이다(920~930년대). 고려 태조 왕건이 호족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다.
- ② 정사암 회의를 개최한 국가는 백제이다(천정대와 호암사지에서 열림).
- ③ 최고 행정 관서로 집사부를 둔 국가는 신라이다(651, 진덕 여왕 5). 왕의 명령을 집행하고 보고하며 중요한 기밀 사무를 맡았다. 참고로 집사부(와 창부)의 전신으로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稟主)가 설치된 것은 진흥왕 26년인 565년의 일이다(집사부 설치로 651년에 폐지).
- ⑤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국가는 고려이다(고려 광종).

09 - 신라 경순왕의 투항[사심관 임명]

9.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왕이 구원을 요청하자, 태조는 장수에게 명하여 정예 병사 1만 명을 보내 구원하게 하였다. 견훤은 구원병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겨울 11월에 갑자기 왕경(王京)에 침입하였다. 왕은 비빈, 종실 친척들과 포석정에 가서 연회를 즐기느라 적병이 이르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 ②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 ③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 ④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 ⑤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정답> ⑤

'왕이 구원을 요청하자, 태조는 장수에게 명하여 정예 병사 1만 명을 보내 구원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견훤은 구원병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겨울 11월에 갑자기 왕경(王京)에 침입하였다. 왕은 비빈, 종실 친척들과 포석정에 가서 연회를 즐기느라 적병이 이르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의 경주를 침범해 경애왕(재위 924-927, 제55대)을 살해하고 경순왕(재위 927-935, 제56대)을 세운 것은 927년 11월의 일이다.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것은 고려 태조에게 투항한 직후인 935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김흠돌(?~681)이 반란을 도모한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 원년인 681년의 일이다.
- ② (발해의)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한 것은 발해 무왕 14년인 732년의 일이다.
- ③ 궁예(?~918)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꾼 것은 재위 11년인 911년의 일이다(연호 수덕만세).
- ④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진성 여왕 3년인 889년의 일이다(사벌주는 지금의 경북 상주).

10 - (통일) 신라 말의 사실

10.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원광이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 ② 김대문이 화랑세기를 저술하였다.
- ③ 김대성이 불국사 조성을 주도하였다.
- ④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무책을 올렸다.
- ⑤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여기는 범일대사가 창건한 굴산사가 있던 곳이야. 거대한 당간 지주*는 이 절의 규모와 위상을 잘 보여주지'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 '굴산사는 가지산문 개창 이후 선종 불교가 유행하던 이 시기에 창건되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선종 불교가 유행하던 시기는 (통일) 신라 말이다. 참고로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있는 (강릉) 굴산사(지)는 신라 문성왕 9년인 847년에 범일 국사(810~889)에 의해 창건되었다. 위 자료에 나온 당간 지주(보물 제86호) 외 부도(浮屠)(보물 제85호), 강릉 굴산사지 석불좌상 등이 남아 있다.

*당간 지주: 당간(幢竿)이란 당(幢, 불화를 그린 기)을 달아두는 장대(당을 거는 깃발대)를 가리킨다. 또 당간을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가 당간 지주(支柱)이다. 사찰에서 기도나 법회 등 의식이 있을 때 당간 기주에 당을 달아 두었다. 현재 당이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당간을 지탱하는 지주만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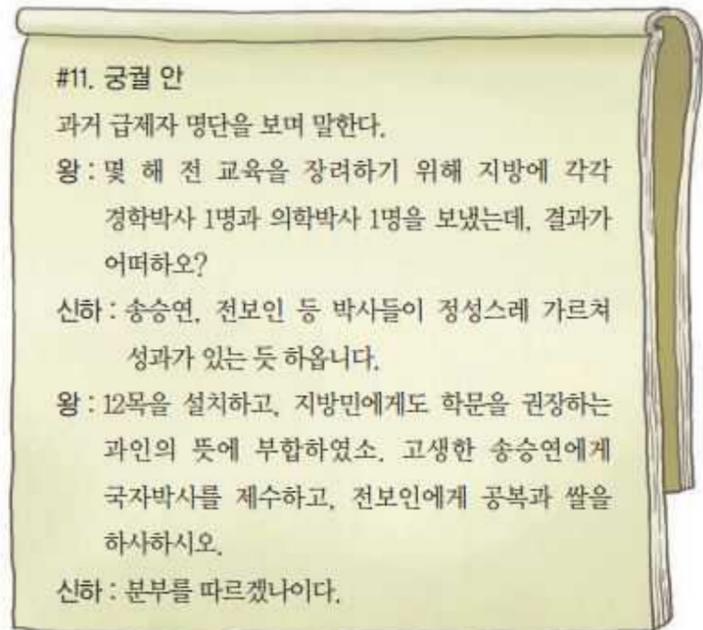
고운(해운) 최치원(857~?)이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10여 조)을 올린 것은 진성 여왕 8년인 894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화랑도의 규범으로) 원광(555~638)이 세속 5계를 제시한 것은 (신라) 진평왕 23년인 601년의 일이다.
- ② (진골 출신인) 김대문(?~?)이 화랑세기, 고승전, 한산기 등을 저술한 것은 7세기 말과 8세기 초의 일이다.
- ③ (신라 중대의 재상인) 김대성(700~774)이 불국사 조성을 주도한 것은 경덕왕 10년인 751년의 일이다.
- ⑤ (신라의 대국통) 자장(590~658)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된 것은 선덕 여왕 15년인 646년의 일이다(건의한 것은 선덕 여왕 12년인 643년).

11 - 고려 성종 대의 사실

11.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 ② 관학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 ③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 ④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⑤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11. 궁궐 안/과거 급제자 명단을 보며 말한다'가 나와 있고, 왕이 '몇 해 전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에 각각 경학박사 1명과 의학박사 1명을 보냈는데, 결과가 어떠하오?'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신하가 '송승연, 전보인 등 박사들이 정성스레 가르쳐 성과가 있는 듯 하옵니다'는 답변이 나와 있다. 또 왕이 '12목을 설치하고, 지방민에게도 학문을 권장하는 과인의 뜻에 부합하였소. 고생한 송승연에게 국자박사를 제수하고, 전보인에게 공복과 쌀을 하사하시오'라는 명이 나와 있다.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지방에 보냈다는 구절과 '12목을 설치'하였다는 표현을 통해 주어진 자료(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은 고려의 제6대 왕인 성종(재위 981~997)임을 알 수 있다[12목을 설치한 것은 성종 2년(983),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한 것은 성종 6년(987)].

최승로(927~989)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 체제를 정비한 것은 성종 원년인 982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한 것은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 ② 관학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한 것은 예종 14년인 1119년의 일이다.
- ③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 교육을 강화한 것은 공민왕 16년인 1367년의 일이다.
- ⑤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고려 태조 19년인 936년의 일이다.

12 - 고려 시대의 사회 정책

12.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왕이 명하였다. “도성 안의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구제도감을 설치하여 치료하고,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매장하라.”
- 중서성에서 아뢰었다. “지난해 관내 서도의 주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사창과 공해(公廩)의 곡식을 내어 경작을 원조하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는 의창을 열어 진휼하십시오.”

- ① 유랑민을 구휼하는 활인서를 두었다.
- ②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 ③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 ④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철요를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 ⑤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다.

정답> ⑤

위의 사료에 '왕이 명하였다. 도성 안의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구제도감을 설치하여 치료하고, 시신과 유골은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매장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구제도감(구급도감)은 고려 시대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 구조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이다. 주어진 자료에서처럼 고려 예종 4년(1109) 5월 개경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체가 거리에 방치되는 사태로 번지자 구제도감을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 예종 원년(1106)에 설치된 동·서 제위도감, 충목왕 4년(1348)에 설치된 진제도감, 공민왕 3년(1354)에 설치된 진제색도 이와 유사한 기관이다.

아래의 자료에 '중서성에서 아뢰었다. 지난해 관내 서도의 주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사창과 공해(公廩)의 곡식을 내어 경작을 원조하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는 의창을 열어 진휼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흑창을 확대한 의창이 만들어진 것은 고려 성종 5년인 986년의 일이다. 주어진 자료는 고려 문종 4년인 1050년(경인년)에 있었던 일이다 [고려 문종(재위 1046-1083), 제11대].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가 운영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963, 고려 광종 14).

오답 해설>

- ① 유랑민을 구휼하는 활인서(活人署)를 둔 것은 조선 시대의 일이다(1466, 조선 세조 12). 1414년(태종 14)의 동·서 활인원을 통합하여 활인서로 고친 것이다[동·서 활인원은 또 1392(태조 원년)의 동·서 대비원을 개칭한 것]. 참고로 활인서는 조선 고종 19년인 1882년에 폐지되었다.
- ② [을파소(?~203)의 건의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이 실시된 것은 194년(고구려 고국천왕 16)의 일이다.
- ③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집성방이 편찬된 것은 조선 시대의 일이다(1433, 조선 세종 15).
- ④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철요를 간행하여 보급한 것 역시 조선 시대의 일이다(1554, 조선 명종 9).

13 - 몽골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

13.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2점]

병마사 박서는 김중온에게 성의 동서쪽을, 김경손에게는 성의 남쪽을 지키게 하였다. (가)의 대군이 남문에 이르자 김경손은 12명의 용맹한 군사와 여러 성의 별초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 우별초가 모두 땅에 엎드리고 응하지 않자 김경손은 그들을 성으로 돌려 보내고 12명의 군사와 함께 나아가 싸웠다. -『고려사』-

- ① 김중서를 보내 6진을 개척하였다.
- ② 서희를 보내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였다.
- ③ 별무반을 조직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 ④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 ⑤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정답> ④

'병마사 박서는 김중온에게 성의 동서쪽을, 김경손에게는 성의 남쪽을 지키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의 대군이 남문에 이르자 김경손은 12명의 용맹한 군사와 여러 성의 별초를 거느리고 성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 우별초가 모두 땅에 엎드리고 응하지 않자 김경손은 그들을 성으로 돌려 보내고 12명의 군사와 함께 나아가 싸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박서', '김중온'과 '김경손'이라는 인물과 주어진 사료의 내용으로 볼 때 몽골의 제1차 침입 시에 있었던 사실임을 알 수 있다(1231, 고려 고종 18).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고려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이른바 '강화도 천도', 1232(고종 19)].

오답 해설>

- ① 김중서(1383~1453)를 보내 6진을 개척한 것은 조선 세종 대의 일이다(1434, 세종 16). 세종은 그 전해인 재위 15년(1433)에는 최윤덕(1376~1445)을 보내 4군을 개척하게 하였는데, 4군과 6진 모두 완성하기까지 대략 10여 년이 걸렸다.
- ② 서희(942~998)를 보내 (거란의 적장) 소손녕(?~996)과 외교 담판을 벌인 것은 고려 성종 대의 일이다(993, 성종 12, '거란의 제1차 침입 시'). 외교 담판 결과 고려는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 ③ [윤관(?~1111)의 건의로] 별무반을 조직한 것은 고려 숙종 대이고, (별무반으로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 9성을 축조한 것은 예종 대의 일이다[각 1104(숙종 9)/1107(예종 2)].
- ⑤ [최무선(1325~1395)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

14 -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

14.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 ②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 ③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하였다.
- ④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⑤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정답> ①

왼쪽 말풍선에 '몇 해 전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화폐를 유통시켜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편익을 꾀하였으나,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주현에 명령하여 주식점(酒食店)을 열고 백성들에게 화폐를 활용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하여 그 이로움을 알게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전도감이 설치된 것은 고려 숙종 2년인 1097년의 일이다.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고려 숙종 6년인 1101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한 것은 발해이다.
- ③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장보고(?~846)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된 것은 (통일) 신라 시대인 9세기 전반의 일이다[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 ⑤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된 것은 삼국 시대인 6세기 초의 일이다(509, 신라 지증왕 10).

15 - 동명왕편

15.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역사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 ②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 ③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 ④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 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이다.

정답> ①

시대가 '고려 후기'고, '건국 영웅의 일대기를 서술한 장편 서사시로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 탄생 이전의 역사, 출생과 건국, 유리왕의 즉위 과정과 저자 이규보의 감상이 적혀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가 가리키는 것은 이규보(1168~1241)의 동명왕편임을 알 수 있다(1193, 고려 명종 23).

동명왕편에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오답 해설>

- ②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영재 유득공(1748~1807)의 발해고이다(1784, 조선 정조 8).
- ③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된 것은 조선 왕조 실록이다.*

*사초(史草)란 사관이 매일 기록한 자료를 가리키고, 시정기(時政記)란 조선 시대에 춘추관에서 각 관서들의 업무 기록을 종합하여 편찬한 일종의 국정 기록물이다. 또 시정기 편찬이 결정된 것은 세종 때의 일(1434, 세종 16)이므로, '시정기'라는 말이 나오면 고려 시대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시 말해 고려 시대에도 사초를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하였지만, 사초와 함께 시정기까지 참고하여 실록을 편찬한 것은 어디까지나 조선 왕조 실록만 해당한다.

- ④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한 (대표적인) 것은 보각국사 일연(1206~1289)의 삼국유사이다(1285, 충렬왕 11).
- 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는 김부식(1075~1151)의 삼국사기이다(1145, 인종 23). 삼국사기는 본기, 열전 등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16 -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16. 다음 기획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은? [1점]

흙으로 빛은 푸른 보물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려 시대 귀족 문화를 보여주는 비색의 순청자와 음각한 부분에 백토나 흑토를 채워 화려하게 장식한 상감 청자가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기간: 2022년 00월 00일 ~ 00월 00일
 ■장소: △△ 박물관



정답> ③
 '흙으로 빛은 푸른 보물'이라는 제목 아래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려 시대 귀족 문화를 보여주는 비색의 순청자와 음각한 부분에 백토나 흑토를 채워 화려하게 장식한 상감 청자가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중기의 순청자(11세기)와 상감 청자(12~13세기)에 대한 내용으로, 주어진 선지에서는 ③의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만이 그에 해당한다(13세기 제작). 국보 제68호로, 표면에 무늬를 새겨 파내고 다른 재질의 재료를 넣어 제작하였다.

오답 해설>
 ① (통일) 신라 시대인 8세기에 제작된 도기 연유인화문 향아리이다. 대호(大壺)와 소호(小壺) 총 2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시된 것은 소호이다(도기 연유인화문 소호). '호(壺)' 자가 향아리를 가리키는 '병 호'의 뜻이다.
 ②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이다. 고려 시대 청동 정병의 전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고려) 자기가 아니라 은입사 기술이 적용된 금속 공예품이다.
 *정병(淨瓶): 본래 깨끗한 물을 담는 수병[물병]으로 승려의 필수품인 18물(物)의 하나이던 것이 차츰 부처님 앞에 정수를 바치는 공양구(供養具)로서 그 용도의 폭이 넓어졌다.
 ④ 조선 전기에 제작된 청화 백자로, 백자 청화 매죽문 향아리[호]이다(15세기 제작).
 ⑤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제작된 분청사기로, 분청사기 상감 운학문 향아리[호]이다(15세기 제작).

17 - 과전법 제정

17.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 ②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이 제정되었다.
- ③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 ④ 연분9등법을 시행하여 수취 체제가 정비되었다.
- ⑤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간행되었다.

정답> ②
 왼쪽 그림에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들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는 국왕의 명에 '전하, 네 가지 이유로 불가하옵니다'는 장군의 대답이 나와 있다. 고려 말기인 1388년(우왕 14) 5월에 있었던 이성계(1335~1408)의 위화도 회군 전에 고려 조정에서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오른쪽 그림에 '새 도읍이 정해졌으니 도감을 설치하고 심덕부 등을 판사로 임명하여 궁궐을 조성하게 하시오'라는 임금의 명에 '명을 받들겠습니다'는 신하의 대답이 나와 있다. 조선 건국 후인 1394년(태조 3) 10월 한양으로 천도하기 전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한 것은 1393년(태조 2)이고, 신도궁궐조성도감을 설치하여 새 수도의 도시 계획을 구상한 것은 1394년의 일이다.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이 제정된 것은 고려 공양왕 3년인 1391년의 일이다(1391.5).

오답 해설>
 ①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된 것은 조선 성종 9년인 1478년의 일이다.
 ③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것은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④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는) 연분9등법을 시행하여 수취 체제를 정비한 것은 세종 26년인 1444년의 일이다.
 ⑤ 음악 이론[궁중 음악]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간행된 것은 성종 24년인 1493년의 일이다.

18 -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책

18. (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달의 인물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이에



■ 생몰: 1373년~1445년

■ 경력: 통신부사, 첨지중추원사, 동지중추원사

울산의 아전 출신으로 호는 학파(鶴坡),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수십 차례 (가)에 파견되어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조선과 (가) 사이에 세견선의 입항 규모를 정한 계해약조 체결에 기여하였다.

- ① 하정사, 성절사 등을 파견하였다.
- ②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였다.
- ③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 ④ 부산포, 제포, 염포의 삼포를 개항하였다.
- ⑤ 사절 왕래를 위하여 북평관을 개설하였다.

정답> ④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이에'라는 제목 아래 생몰연도(1373~1445)와 경력(통신부사, 첨지중추원사, 동지중추원사)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울산의 아전 출신으로 호는 학파(鶴坡),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수십 차례 (가)에 파견되어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조선과 (가) 사이에 세견선의 입항 규모를 정한 계해약조* 체결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일본임을 알 수 있다.

*계해약조: 1443년(세종 25)에 조선이 대마도주와 세견선 등 무역에 관해 맺은 조약. 1426년(세종 8)에 있었던 삼[3]포의 개항을 비롯한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맺은 조약이다.

부산포, 제포, 염포의 삼포를 개항한 것은 조선 세종 8년인 1426년의 일이다. 사실은 부산포가 이때 열리고 염포(울산)와 제포(창원, 내이포)는 10년 뒤인 1436년(세종 18)에 추가로 개항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의 사신을 파견한 대상은 명이다 (명으로 보내는 사신).
- ②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한 것은 여진족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에서였다. 태종 6년인 1406년에 처음 설치되었다.
- ③ 광군을 조직한 것은 고려 정종 2년(947)으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 ⑤ 사절 왕래를 위해 (한성에) 북평관을 개설한 것은 조선 세종대의 일이다(1438, 세종 20). 원래 야인관이라 부르던 것을 북평관으로 고쳤다.

19 - 조선 세종 대의 사실

19. 밑줄 그은 '전하'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데 각기 적당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하기를, 주현의 나이든 농부들을 방문하여 농사지은 경험을 아뢰게 하시고 또 신(臣) 정초에게 그 까닭을 덧붙이게 하셨습니다. 중복된 것을 버리고, 요약한 것만 뽑아 한 편의 책으로 만들고 제목을 농사직설이라고 하였습니다.

- ① 예학을 정리한 가례집람이 저술되었다.
- ②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완성되었다.
- ③ 아동용 윤리·역사 교재인 동몽선습이 간행되었다.
- ④ 효자, 충신 등의 사례를 제시한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
- ⑤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한 성학집요가 집필되었다.

정답> ④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아니하고 곡식을 심고 가꾸는 데 각기 적당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하기를, 주현의 나이든 농부들을 방문하여 농사지은 경험을 아뢰게 하시고 또 신(臣) 정초에게 그 까닭을 덧붙이게 하셨습니다. 중복된 것을 버리고, 요약한 것만 뽑아 한 편의 책으로 만들고 제목을 농사직설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농사직설이 관찬(官撰)으로 간행된 것은 조선 세종 11년인 1429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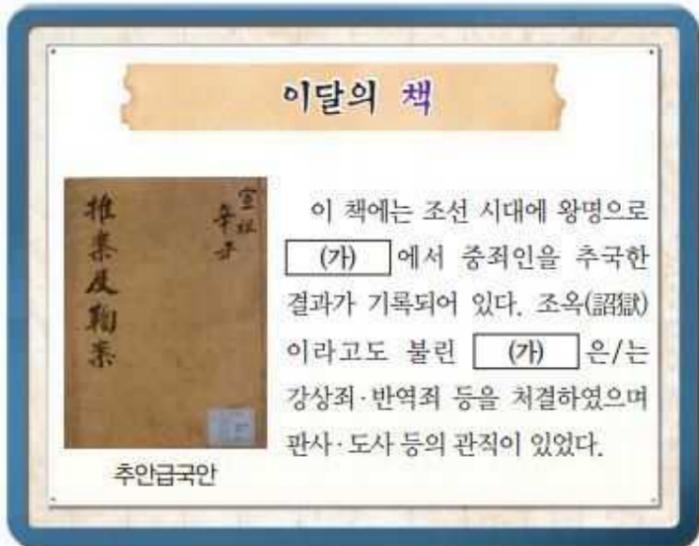
효자, 충신, (열녀) 등의 사례를 제시한 삼강행실도가 편찬된 것은 세종 16년인 1434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조선의 현실에 맞게) 예학을 정리한 가례집람이 저술한 이는 서인의 영수이자 예학의 대가였던 사계 김장생(1548~1631)이다. 가례집람은 김장생 사후인 숙종 11년(1685)에 간행되었다.
- ②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완성된 것은 성종 5년인 1474년의 일이다.
- ③ 아동용 윤리·역사 교재인 동몽선습이 간행된 것은 중종 38년인 1543년의 일이다(아동용 초급 교재). 소요당 박세무(1487~1554)가 저술하였다.
- ⑤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한 성학집요가 집필된 것은 선조 8년인 1575년의 일이다. 율곡 이이(1536~1584)가 저술하였다.

20 - 의금부

20.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국왕 직속의 특별 사법 기구였다.
- ② 사림의 건의로 종종 때 폐지되었다.
- ③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삼사로 불리었다.
- ④ 5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 ⑤ 서얼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되었다.

정답> ①
 '이달의 책'이라는 제목 아래 '이 책(추안금국안)에는 조선 시대에 왕명으로 (가)에서 중죄인을 추국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조옥(詔獄)이라고도 불린 (가)은/는 강상죄·반역죄 등을 처벌하였으며 판사·도사 등의 관직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국왕 직속 사법 기구인 의금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의금부는 조옥(詔獄) 외에 금오(金吾), 왕부(王府)라고도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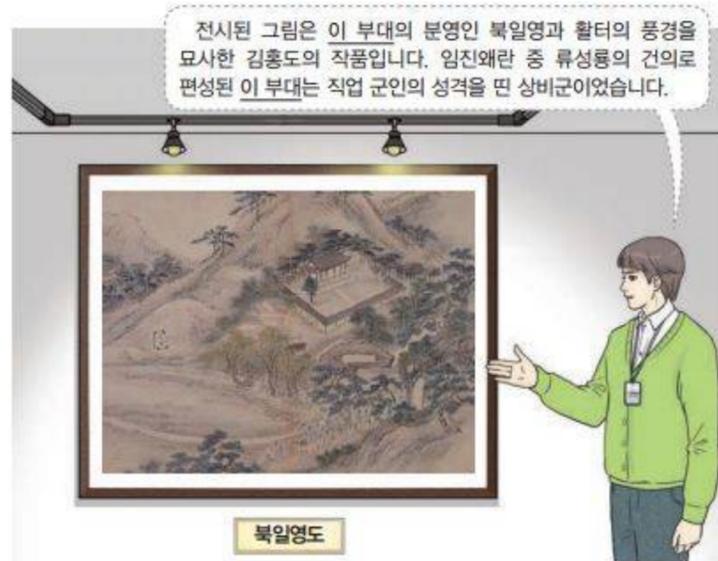
의금부는 국왕 직속의 특별 사법 기구였다.

오답 해설>

- ② 사림의 건의로 종종 때 폐지된 기구는 소격서이다(1518, 중종 13). 소격서는 도교 의식을 주관하던 기구였다.
- ③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삼사로 불린 기구는 홍문관이다(1478, 성종 9).
- ④ 5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한 기구는 사헌부와 사간원이다.
- ⑤ 서얼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된 기구는 규장각이다(1776, 정조 즉위년).

21 - 훈련도감

21. 밑줄 그은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용호군과 함께 2군으로 불렸다.
- ②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항전하였다.
- ③ 국경 지역인 북계와 동계에 배치되었다.
- ④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 ⑤ 국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정답> ④
 '전시된 그림(북일영도)은 이 부대의 분영인 북일영*과 활터의 풍경을 묘사한 김홍도의 작품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임진왜란 중 류성룡의 건의로 편성된 이 부대는 직업 군인의 성격을 띤 상비군이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친 '이 부대'는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8월에 설치된 훈련도감임을 알 수 있다.

*북일영: 훈련도감 소속의 궁궐 호위 부대 중 하나로, 경희궁 북문인 무덕문 밖 지금의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하였다.

훈련도감은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용호군과 함께 2군으로 불린 부대는 응양군이다(고려 시대의 중앙군인 2군 6위).
- ②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항전한 부대는 삼별초이다(진도 삼별초, 1270.6~1271.5).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로 제주도로 건너가 다시 항전한 이른바 '제주도 삼별초'의 항전 기간은 1271년 5월에서 1273년 6월까지이다.
- ③ 국경 지역인 북계와 동계에 배치된 부대는 주진군(고려 시대 양계의 상비군)이다. 주진군은 좌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되었다.
- ⑤ 국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둔 부대는 장용영이다(1793, 정조 17).

22 - 정묘호란(용골산성 전투)

22.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왕에게 이괄 부자가 역적의 우두머리라고 고해바친 자가 있었다. 하지만 왕은 "반역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이괄의 아들인 이전을 잡아오라고 명하였다. 이에 이괄은 군영에 있던 장수들을 위협하여 난을 일으켰다.

(나) 최명길을 보내 오랑캐에게 강화를 청하면서 그들의 진격을 늦추도록 하였다. 왕이 수구문(水溝門)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변란이 창졸 간에 일어났기에 도보로 따르는 신하도 있었고 성안 백성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다. 초경을 지나 왕의 가마가 남한산성에 도착하였다.

- ①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 ②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③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 ④ 서인 세력이 폐모살제를 이유로 반정을 일으켰다.
- ⑤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정답> ①

(가)에 '왕에게 이괄 부자가 역적의 우두머리라고 고해바친 자가 있었다. 하지만 왕은, 반역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이괄의 아들인 이전을 잡아오라고 명하였다. 이에 이괄은 군영에 있던 장수들을 위협하여 난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괄(1587~1624)이 난이 일어난 것은 조선 인조 2년인 1624년의 일이다(1624.1).

(나)에는 '최명길을 보내 오랑캐에게 강화를 청하면서 그들의 진격을 늦추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이 수구문(水溝門)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변란이 창졸 간에 일어났기에 도보로 따르는 신하도 있었고 성안 백성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다. 초경을 지나 왕의 가마가 남한산성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청의 침입으로 조선의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대피한 것은 1636년(인조 14) 12월의 일이다(병자호란).

정봉수(1572~1645)가 (평안북도의 염주군과 피현군의 경계에 위치한) 용골산성에서 항전한 것은 1627년(인조 5) 2월의 일이다(정묘호란).

오답 해설>

- ② 이순신(1545~1598)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1597년(선조 30) 9월의 일이다(명량 대첩).
- ③ 권율(1537~1599)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한 것은 1593년(선조 26) 2월의 일이다(행주 대첩).
- ④ 서인 세력이 폐모살제를 이유로 반정을 일으킨 것은 1623년(광해군 15) 4월의 일이다(인조반정).
- ⑤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발생한 것은 1589년(선조 22년) 10월의 일이다. 1591년까지 정여립과 연루된 다수의 동인이 희생되었다.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23 - 청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

23.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 ②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정하였다.
- ③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하였다.
- ④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았다.
- ⑤ 포로 송환을 위하여 유정을 회답 겸 쇄환사로 파견하였다.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 '오늘 알아볼 지도(입연정도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이 지도는 의주에서 연경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조선 사신들은 이 경로를 따라 (가)을/를 왕래하였는데, 이 사행에 참여한 만상은 국제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연경'이라는 지명(청의 수도, 지금의 중국 베이징), '조선 사신들', '만상'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주어진 '(가)'는 청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입연정도도(入燕程途圖): 조선 정조 시기인 18세기 말에 제작(채색 사본, 서울대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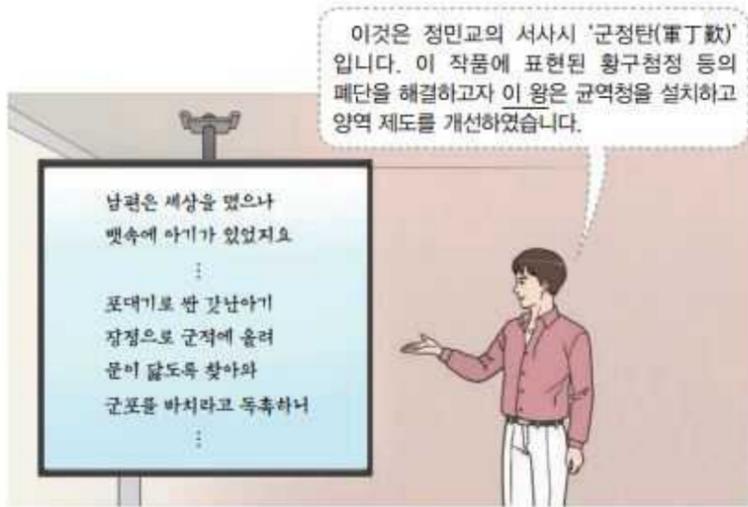
조선과 청은 조선 숙종 38년인 1712년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정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박위(?~1398)를 파견하여 (왜구의) 근거지(쓰시마섬)를 토벌한 것은 고려 창왕 원년인 1389년의 일이다. 조선 시대에 이종무(1360~1425)가 세종 원년인 1419년에 쓰시마섬을 다시 토벌한 적이 있다.
- ③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한 것은 조선 태종 7년인 1407년의 일이다. 즉 동평관은 일본 사신이 머물던 숙소로, 왜관(倭館)이라고도 하였다.
- ④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원이 차지하고 있던) 철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은 것은 고려 공민왕 5년인 1356년의 일이다.
- ⑤ 포로 송환을 위하여 유정을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일본에 파견한 것은 조선 선조 37년인 1604년의 일이다. 사명대사 유정(1544~1610)은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1542~1616)를 만나 강화를 맺고 이듬해에 임진왜란 때 잡혀간 조선인 3,000여 명을 인솔하여 귀국하였다. 참고로 이후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자 1607년(선조 40) 정사(正使) 여우길 일행도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일본에 파견된 적이 있다(이후에도 통신사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 두 차례 더 파견).

24 - 조선 영조의 업적

24.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수도 방위를 위하여 금위영을 창설하였다.
- ②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제도를 정비하였다.
- ③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국 기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 ④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 ⑤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정답> ②

'이것은 정민교의 서사시 <군정탄(軍丁歎)>입니다. 이 작품에 표현된 황구점정 등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이 왕은 균역청을 설치하고 양역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서사시 <군정탄>의 내용으로 '남편은 세상을 떴으나/뱃속에 아기가 있었지요. ... 포대기로 뺀 갓난아기/장정으로 군적에 올려/문이 닳도록 찾아와/군포를 바치라고 독촉하니'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왕은 균역법을 시행한 조선의 제21대 왕인 영조(재위 1724-1776)임을 알 수 있다(1750, 영조 25).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제도를 정비한 것은 영조 22년인 1746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수도 방위를 위하여 금위영을 창설한 왕은 숙종(재위 1674-1720, 제19대)이다(1682, 숙종 8). 이로써 5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
- ③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국 기무를 전담하게 한 왕은 고종(재위 1863-1907, 제26대)이다(1865, 고종 2).
- ④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한 왕은 정조(재위 1776-1800, 제22대)이다(1781, 정조 5).
- ⑤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한 왕은 인조(1623-1649, 제16대)이다(1635, 인조 13).

25 - 조선 시대의 향리

2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상피제의 적용을 받았다.
- ② 잡과를 통해 선발되었다.
- ③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렸다.
- ④ 이방, 호방 등 6방에 소속되었다.
- ⑤ 공음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정답> ④

'한국사 퀴즈'로 '조선 시대 직역(職役)을 맞이하는 문제, 이제 마지막 힌트가 공개됩니다'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1단계 힌트로, '단안(壇案)이라는 명부에 등록되었다'가, 2단계 힌트로, '연조귀감에 연혁이 수록되었다'가, 3단계 힌트로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와 관련된 직역은 향리(鄕吏)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연조귀감은 향리에 관계된 기록 및 그들 중 뛰어난 인물의 전기이다(1848, 헌종 14).

향리는 이방, 호방 등 6방에 소속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상피제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일정반 범위 내의 친족 간에는 동일 관사나 통속관계(統屬關係)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혹은 청송관(聽訟官)·시관(試官) 등이 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가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특정 지방에만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는 향리와는 관련이 없다.
- ② 잡과를 통해 선발된 것은 기술관들이다(기술직 중인).
- ③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린 것은 (조선 시대 최고의 지방 장관인) 관찰사이다. 대개 종2품 이상의 고위 관리가 임명되었으며, 각 도에 파견되어 지방 통치의 책임을 맡았다. 관내 군현의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 성정을 평가하였다.
- ⑤ 공음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은 것은 5품 이상의 (고위)관리들이다(고려 시대).

26 - 천주교

26.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신문

제△△호 ○○○○년 ○○월 ○○일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로 지정



해미순교성지가 전 세계에 30여 곳밖에 없는 국제성지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었다. 병인박해 당시 (가) 신자들이 죽임을 당한 이곳은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지역이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남연군 묘 등 여러 역사 유적이 있는 내포 문화권은 더욱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 ①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언하였다.
- ②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삼았다.
- ③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 ⑤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정답> ⑤
 '해미순교성지, 국제 성지로 지정'이라는 제목 아래 '해미순교성지가 전 세계에 30여 곳밖에 없는 국제 성지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병인박해 당시 (가) 신자들이 죽임을 당한 이곳은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지역이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남연군 묘 등 여러 역사 유적이 있는 내포 문화권은 더욱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천주교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해미순교성지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천주교 순교 성지로, 2021년 3월 1일 로마 교황청에 의해 국내 두 번째 국제 성지*로 선포되었다. 병인박해(1866년) 이후 1872년까지 약 1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곳이다.
 *천주교의 첫 번째 국제 성지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다. 2018년 9월 아시아 최초로 로마 교황청이 공식 승인한 국제 순례지가 되었다. 서울 명동 성당, 가회동 성당, 서소문 순교 성지 등 순례지 24곳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 명소가 연계되어 총 44.1km로 이루어져 있다. 제1코스 '말씀의 길(명동 대성당~가회동 성당 9개소, 8.7km)', 제2코스 '생명의 길(가회동 성당~중림동 약현 성당 9개소, 5.9km)', 제3코스 '일치의 길(중림동 약현 성당~삼성산 성지 8개소, 29.5km)'로 나뉜다.
 천주교는 처음에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오답 해설>
 ①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언한 것은 미륵 신앙이다. 일종의 예언 사상으로 조선 후기에 널리 유행하였다.
 ②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삼은 종교는 동학이다. 동경대전은 동학의 경전으로 1880년(고종 17)에, 용담유사는 동학의 포교가사집으로 1881년(고종 18)에 간행되었다. 동학은 후에 제3대 교조, 의암 손병희(1861~1922)에 의해 천도교로 명칭을 바꾸었다(1905).
 ③ 박종빈(1891~1943)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과 간척 사업)을 펼친 종교는 원불교이다(1916.4).
 ④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한 종교는 대종교이다. 대종교는 홍암 나철(1863~1916)이 1909년 1월에 창시한 민족 고유의 종교이다. 처음에는 명칭이 단군교였다가 이듬해인 1910년 7월 대종교로 개명하였다.

27 - 다산 정약용의 활동

27.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답사 보고서

- ◆ 주제: 대학자 (가)의 흔적을 찾아서
- ◆ 날짜: 2022년 ○○월 ○○일
- ◆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 ◆ 소개: 흙흙신서, 마과회통 등을 저술한 (가)은/는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 ◆ 경로





여유당
문도사
묘소

- ① 성호사설에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 ② 양반전에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지적하였다.
- ③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 ④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하였다.
- ⑤ 경세유표에서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답> ⑤
 '답사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주제로 '대학자 (가)의 흔적을 찾아서'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답사 지역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가 나와 있고, 소개로 '흙흙신서, 마과회통 등을 저술한 (가)은/는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경로로는 '여유당'(생가), '문도사'(사당), '묘소'가 사진으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다산 정약용(1762~1836)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주어진 자료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위치한 다산 정약용의 유적지로, '마현 다산마을'라고 한다.
 정약용은 (유배 중이었던 전남 강진에서 저술한) 경세유표에서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1817, 순조 17).

오답 해설>
 ① 성호사설에서 한전론을 주장한 인물은 (성호) 이익(1681~1763)이다.
 ② 양반전에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지적한 인물은 연암 박지원(1737~1805)이다.
 ③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인물은 담헌 홍대용(1731~1783)이다(1766, 영조 42).
 ④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한 인물은 초정 박제가(1750~1805)이다(1778, 정조 2).

28 -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의 사실

28.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창녕의 관산 서원 터에서 매주(埋主) 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서원에 모셔져 있던 신주를 옹기에 넣고 기와로 둘러싼 뒤 묻은 것입니다. 이번 발굴로 만동묘 철거 이후 서원을 철폐하던 시기에 신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원 철폐 관련 매주 시설 첫 발견

- ①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가 동원되었다.
- ②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 ③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흥경래가 봉기하였다.
- ④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침입하였다.
- ⑤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이 단행되었다.

정답> ④

'서원 철폐 관련 매주 시설 첫 발견'이라는 제목 아래 '창녕의 관산 서원 터에서 매주(埋主) 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시설은 서원에 모셔져 있던 신주를 옹기에 넣고 기와로 둘러싼 뒤 묻은 것입니다. 이번 발굴로 만동묘 철거 이후 서원을 철폐하던 시기에 신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만동묘가 철거된 것은 조선 고종 2년인 1865년 5월의 일이고, 전국의 서원을 47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훼철]한 것은 고종 8년인 1871년의 일이다(600여 곳 철폐). 두 사건 모두 흥선 대원군의 집권기(1863.12~1873.11)에 일어났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침입한 것은 1871년 5월의 일이다(신미양요, 1871.5~7).

오답 해설>

- ①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가 동원된 것은 두 차례로 조선 효종 5년인 1654년(변급), 효종 9년인 1658년(신류)의 일이다.
- ② (환재) 박규수(1807~1876)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것은 철종 13년인 1862년의 일이다(1862.5).
- ③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흥경래(1771~1812)가 (평안도 일대에서) 봉기한 것은 순조 11년인 1811년의 일이다(1811.12~1812.4).
- ⑤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이 단행된 것은 정조 15년인 1791년의 일이다. 신해통공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29 - 동학 농민 운동

29.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에피소드 추천
최신화부터 | 첫화부터

1부 고부 민란이 일어나다
2부 전주성을 점령하다
3부 (가)
4부 우금치에서 패배하다

1894, 녹두꽃 피고 지다
낡은 체제와 외세의 압박에 맞섰던 농민들, 그들이 이끈 변혁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해 본다.

- ① 남북접이 논산에 집결하다
- ②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다
- ③ 백산에 모여 4대 강령을 선포하다
- ④ 최시형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다
- ⑤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열리다

정답> ①

'1894, 녹두꽃 피고 지다'는 제목 아래 '낡은 체제와 외세의 압박에 맞섰던 농민들, 그들이 이끈 변혁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해 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에는 에피소드로 '1부 고부 민란이 일어나다', '2부 전주성을 점령하다', '3부 (가)', '4부 우금치에서 패배하다'가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것은 1894년 4월 27일이고(같은 해 5월 8일 전주 화약을 맺고 철수), 동학 농민군이 우금치에서 패배한 것은 같은 해 11월의 일이다(11.9~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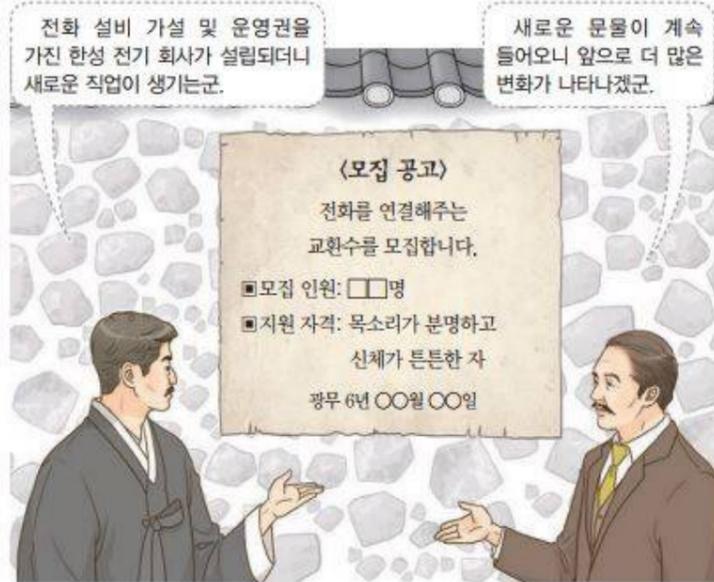
남북접이 (제2차 봉기를 위해) 충남 논산에 집결한 것은 1894년(고종 31) 10월의 일이다(1894.10.9, 이후 충남 공주로 진군).

오답 해설>

- ② (동학 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도 감영군에게) 승리한 것은 1894년 4월 7일(음력)의 일이다(1894.4.6~4.7).
- ③ (동학 농민군이) 백산에 모여 4대 강령을 선포한 것은 1894년 3월 26일의 일이다(1894.3.25~3.26).
- ④ (해월) 최시형(1827~1898)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된 것은 1863년(철종 14) 초의 일로 추정하고 있다.
- ⑤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열린 것은 1892년(고종 29) 11월의 일이다.

30 - 근대 문물의 수용

30. 다음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알렌의 건의로 광혜원이 세워졌다.
- ② 박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 ③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립되었다.
- ④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 ⑤ 우편 사무를 관장하는 우정총국이 처음 설치되었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전화 설비 가설 및 운영권을 가진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더니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새로운 문물이 계속 들어오니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나겠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주어진 자료 속 <모집 공고>에는 '전화를 연결해주는 교환수를 모집합니다'는 구절과 함께 지원 자격으로 '목소리가 분명하고 신체가 튼튼한 자'와 '광무 6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광무 6년은 1902년).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된 것은 광무 2년이자 고종 35년인 1898년 1월의 일이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 개통된 것은 1905년 5월의 일이다(완공된 것은 1904년 12월).

오답 해설>

- ① 알렌(1858~1932)의 건의로 광혜원이 세워진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2월의 일이다(3월에 제중원으로 개명).
- ② 박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10월의 일이다.
- ③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립된 것 역시 고종 20년인 1883년 3월의 일이다.
- ⑤ 우편 사무를 관장하는 우정총국이 처음 설치된 고종 21년인 1884년 3월의 일이다. 같은 해 12월에 열린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갑신정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폐지되었다.

31 - 대한 제국 군대 해산(정미 7조약)

31.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2점]

박승환은 병대(兵隊)에 대한 해산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국가가 망하였는데도 일본인 하나를 죽이지 못하였으니 죽어도 그 죄를 씻지 못할 것이다. 나는 차마 제군들이 병대를 떠나도록 놓아둘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자결하였다.

- ① 정미 7조약이 체결되었다.
- ② 일제가 105인 사건을 조작하였다.
- ③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부임하였다.
- ④ 기유각서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조인되었다.
- ⑤ 일진회가 한일 합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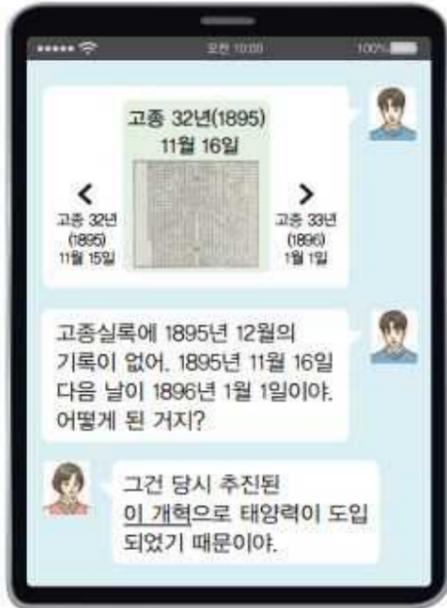
'박승환은 병대(兵隊)에 대한 해산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국가가 망하였는데도 일본인 하나를 죽이지 못하였으니 죽어도 그 죄를 씻지 못할 것이다. 나는 차마 제군들이 병대를 떠나도록 놓아둘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자결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대한 제국 군대의 해산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1907년 7월 24일에 강요된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의 부수 비밀 각서에 의해 같은 해 8월 1일 대한 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당시 시위대 제1대대장이었던 박승환(1869~1907)이 그에 항거하여 자결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일제가 105인 사건을 조작한 것은 1911년 9월의 일이다(넓게 보면 1910.12~1913.7).
- ③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1852~1919)가 부임한 것은 1910년 10월의 일이다(1910.10.1).
- ④ (사법권과 감옥 사무의 처리권을 박탈하는) 기유각서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조인된 것은 1909년 7월의 일이다(1909.7.12).
- ⑤ 일진회가 한일 합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1909년 12월의 일이다(1909.12.4).

32 - 을미개혁

32. 밑줄 그은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지계아문을 설립하였다.
- ② 대한국 국체를 반포하였다.
- ③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 ④ 개혁 추진 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 ⑤ 군제를 개편하여 5군영을 2명으로 통합하였다.

정답> ③

'고종 32년(1895) 11월 16일'이라는 날짜가 제시되어 있고, '고종실록에 1895년 12월의 기록이 없어. 1895년 11월 16일 다음 날이 1896년 1월 1일이야. 어떻게 된 거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건 당시 추진된 이 개혁으로 태양력이 도입되었기 때문이야'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개혁'은 을미개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5.8~18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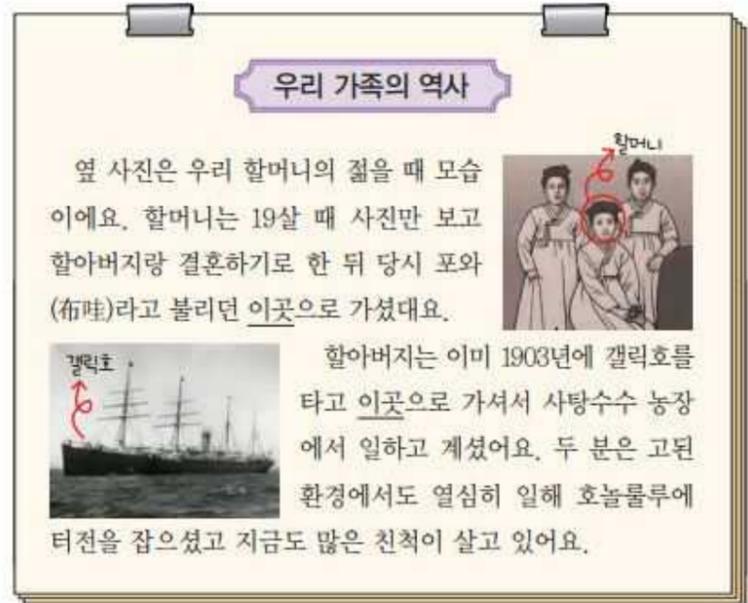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된 것 역시 을미개혁 때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지계아문이 설립된 것은 광무개혁 때의 일이다(1901.10~1904.4).
- ② 대한국 국체가 반포된 것 역시 광무개혁 때의 일이다(1899.8).
- ④ (자주적인 내정 개혁을 위한) 개혁 추진 기구로 교정청이 설치된 것은 1894년(고종 31) 6월의 일이다(1894.6.11~25). 하지만 교정청은 일제의 강요로 같은 해 6월 25일에 군국기무처가 설치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⑤ 군제를 개편하여 5군영을 2명(무위영과 장어영)으로 통합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11월의 일이다.

33 - 미국 하와이의 민족 운동

33. 밑줄 그은 '이곳'에서 있었던 민족 운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이 결성되었다.
- ② 권업회가 조직되어 권업신문을 창간하였다.
- ③ 사회주의 계열의 한인 사회당이 조직되었다.
- ④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 무관 학교가 설립되었다.
- ⑤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되어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정답> ⑤

'우리 가족의 역사'라는 제목 아래 '옆 사진은 우리 할머니의 젊을 때 모습이에요. 할머니는 19살 때 사진만 보고 할아버지랑 결혼하기로 한 뒤 당시 포와(布哇)라고 불리던 이곳으로 가셨대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할아버지는 이미 1903년에 갤릭호를 타고 이곳으로 가셔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두 분은 고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해 호놀룰루에 터전을 잡으셨고 지금도 많은 친척이 살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곳'은 미국의 하와이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포와'는 하와이의 음역어이다.

하와이에서는 박용만(1881~1928)의 주도로 1914년 6월 대조선 국민 군단이 조직되어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이 결성된 곳은 북간도(동만주)이다(1911.3). 1919년에 이르러 대한 군정회, 대한 군정부로 개편하다가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대한 군정서(북로 군정서)가 되었다.
- ② 권업회가 조직되어 권업신문을 창간한 곳은 러시아의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이다(각 1911.12/1912.4).
- ③ 사회주의 계열의 한인 사회당이 조직된 곳은 러시아의 연해주(하바롭스크)이다(1918.4). 대한 제국 무관 출신이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성재 이동휘(1873~1935)가 참여하였다(발기인 십여 명).
- ④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 무관 학교가 설립된 곳은 서간도(남만주)이다(1911년 6월경 설립된 신흥 강습소에서 1919년 5월에 이르러 신흥 무관 학교로 개명).

34 - 일제의 문화 통치 실시(3·1 운동)

34. 다음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1점]

아무리 그럴듯하게 내세워도 이러한 통치 방식은 결국 우리 조선인을 기만하는 거야.

총독의 임용 범위를 확장하고,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이로써 관민이 서로 협력 일치하여 조선에서 문화적 정치의 기초를 확립한다.



- ①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 ②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시행되었다.
- ③ 브나로드 운동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 ④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이 설립되었다.
- ⑤ 내선일체를 강조한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정답> ①

'아무리 그럴듯하게 내세워도 이러한 통치 방식은 결국 우리 조선인을 기만하는 거야'라는 말과 함께 신문 기사에 '총독의 임용 범위를 확장하고,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이로써 관민이 서로 협력 일치하여 조선에서 문화적 정치의 기초를 확립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19년 3월에 일어난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한 것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제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를 표방한 배경은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된 탓이다.

오답 해설>

- ②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시행된 것은 일제 강점기 말인 1941년 2월의 일이다.
- ③ 브나로드 운동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추진된 것은 1930년대 전반기의 일이다(1931~1934).
- ④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이 설립된 것은 1927년 9월의 일이다. 기존의 조선 노농 총동맹(1924.4)에서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된 것이다.
- ⑤ 내선일체를 강조한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된 것은 1937년 10월 이후의 일이다.

35 - 자료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35. (가)~(다)를 작성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자료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가)	(나)	(다)
국무령에 이상룡이 취임하다	대일 선전(宣戰) 성명서를 발표하다	청사에서 광저우로 청사를 이전하다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 ④ (나) - (다) - (가)
- ⑤ (다) - (가) - (나)

정답> ②

'자료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는 제목 아래 (가)에는 '국무령에 이상룡이 취임하다'가 나와 있다. 석주 이상룡(1858~1932)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령(國務領)에 취임한 것은 1925년 9월의 일이다. 이어 (나)에는 '대일 선전(宣戰) 성명서를 발표하다'가 나와 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1941년 12월의 일이다(1941.12.10). 마지막으로 (다)에는 '청사에서 광저우로 청사를 이전하다'가 나와 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청사를 창사에서 광저우로 이전한 것은 1938년 7월의 일이다(창사로 이동한 것은 1937년 11월, 광저우에서 다시 류저우로 이동한 것은 1938년 11월).

이상을 작성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다)-(나)'가 된다.

36 - 의열단

36.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Q

검사: 폭탄을 구해 숨겨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판재기: 재작년 3월 이후로 조선 독립을 평화적으로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하이로 가서 육혈포와 폭탄을 구해 피로써 독립을 이루려고 하였다.
 이성우: 폭탄으로 고위 관리를 죽이고 중요 건물을 파괴하여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중국 지린성에서 김원봉과 함께 (가) 을/를 조직한 이유이다.
 - 1921년 6월 7일 밀양 폭탄 사건 공판 기록 -

- ①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 ②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③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 전쟁을 준비하였다.
- ④ 삼군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⑤ 단원인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정답> ①

검사의 '폭탄을 구해 숨겨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판재기의 '재작년 3월 이후로 조선 독립을 평화적으로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하이로 가서 육혈포와 폭탄을 구해 피로써 독립을 이루려고 하였다'는 답변이 나와 있다. 이어 이성우의 '폭탄으로 고위 관리를 죽이고 중요 건물을 파괴하여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중국 지린성에서 김원봉과 함께 (가)을/를 조직한 이유이다'는 답변이 나와 있다. 또한 '1921년 6월 7일 밀양 폭탄 사건 공판 기록'이라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단체는 의열단임을 알 수 있다(1919.11).

의열단은 [단체 신채호(1880~1936)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1923.1).

오답 해설>

- ②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대한)보안회이다(1904.7).
- ③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 전쟁을 준비한 단체는 (대한)독립의군부이다(1912.9).
- ④ 삼군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발표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41.11).
- ⑤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한 이봉창(1901~1932)이 단원인 단체는 한인 애국단이다(1931.10).

*일본 도쿄에서 1932년 1월 8일,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일왕 히로히토를 겨냥하여 사쿠라다문(櫻田門)에서 수류탄을 던졌다. 말이 다치고, 궁내대신의 마차가 뒤집어졌으나 히로히토는 다치지 않아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다.

37 - 일제 강점기 말의 정책

37. 밑줄 그은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신문

제△△호 ○○○○년 ○○월 ○○일

나가사키에 원폭 희생자 위령비 세워져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주도로 나가사키에 위령비가 세워졌다. 국민 징용령이 공포된 이후의 시기에 노동자 등으로 끌려갔다가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는 이 비의 건립은 강제 동원과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① 애국반을 조직하여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하였다.
- ②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③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였다.
- ④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 ⑤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였다.

정답> ①

'나가사키에 원폭 희생자 위령비 세워져'라는 제목 아래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주도로 나가사키에 위령비가 세워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국민 징용령이 공포된 이후의 시기에 노동자 등으로 끌려갔다가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는 이 비의 건립은 강제 동원과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국민 징용령이 공포된 이후의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친 '시기'는 일제 강점기 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39년 7월에 제정된 일제의 국민 징용령이 조선에도 적용된 것은 1939년 10월).

애국반이 조직되어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1938년 7월부터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국반은 1938년 7월 7일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이 조직되면서 각 연맹 산하에 10호 단위로 만들어졌다. 참고로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은 1940년 10월에 국민 총력 조선 연맹으로 개편되었다.

오답 해설>

- ②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된 것은 1910년대이다(무단 통치 시기).
- ③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치안 유지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1925년 4월의 일이다(같은 해 5월에 시행)
- ④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공포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허가제 회사령). 허가제 회사령은 1920년 4월에 신고제(계출제) 회사령으로 바뀌었다(일본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 ⑤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한 것은 1910년대이다(1910~1918).

38 - 한국 광복군

3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하였다.
- ②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 전선에 참여하였다.
- ③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 ④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
- ⑤ 간도 참변 이후 밀산에서 집결하여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이 부부(오희영, 신승식)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두 사람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충칭에서 창립된 (가)에서 첩보 담당 및 주석 비서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오희영(1924~1969)은 부모, 동생이 모두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는 답변이 나와 있다. 지청천(1888~1957)이 총사령관이고, 충칭에서 창립되었다는 표현을 통해 주어진 '(가)'는 한국 광복군을 가리킬 수 있다(1940.9.17).

한국 광복군은 1945년에 이르러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당시 한국 광복군은 미국 전략 사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의 도움을 받아 1945년 8월 18일 수도 서울 탈환을 목표로 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동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작전이 무산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한 것은 조선 혁명군(양세봉 총사령)이다(1932.3~7).
- ②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 전선에 참여한 것은 조선 의용군이다(1942.7, 1943년 이후부터 군정학교 학생과 교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팔로군에 배속).
- ④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조선 의용대이다(1938.10).

*관내를 관중(關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중국 본토 지역을 가리킨다(만주, 즉 동북 3성은 관외). 예전 진(秦)나라 때 수도인 장안 일대 주변에 4개의 관문을 설치한 것에서 연유한다.

- ⑤ 간도 참변 이후 밀산에서 집결하여 자유시로 이동한 것은 대한 독립군단(총재 서일)이다(1920.12)(자유시 참변, 1921.6).

39 -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결의

39.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2점]

우리는 조국 흥망의 관두(關頭)*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직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하여 조국의 남북통일과 민주 독립을 촉진해야겠다. 우리 민족자주연맹 중앙집행위원회는 김구 선생과 김규식 박사의 제안에 의하여 실현되는 남북 정치 협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그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관두: 가장 중요한 지점

- ① 허정 과도 정부에서 헌법이 개정되었다.
-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 ③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의되었다.
- ④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 ⑤ 국가 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정답> ③

'우리는 조국 흥망의 관두(關頭)*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직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하여 조국의 남북통일과 민주 독립을 촉진해야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리 민족자주연맹 중앙집행위원회는 김구 선생과 김규식 박사의 제안에 의하여 실현되는 남북 정치 협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그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민족자주연맹 중앙집행위원회', '김구 선생과 김규식 박사의 제안에 의하여 실현되는 남북 정치 협상'이라는 표현에서 주어진 자료는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협상**'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진 자료가 구체적으로 언제 발표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지만 '남북 연석 회의'에 제시할 조건과 김규식(민족자주연맹) 주석의 참여 문제를 논의한 민족자주연맹 정치·상무위원회 연석 회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1948.4.13~15, 4월 14일 5개항의 참여 요구 조건 결정, 이른바 '남북 협상 5개 원칙').

*관두: 가장 중요한 지점

**남북 협상: 1948년 4월 19일에서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연석 회의'[정식 명칭은 '남북조선(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뒤 이어 남북한 주요 단체 대표들 간에 두 차례의 회의(4월 27일과 30일)가 또 열렸는데, 이를 '남북 지도자 협의회'[정식 명칭은 '남북조선(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라 한다. 그런데 또 '4김 회담'이라고 하여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 간의 회담이 4월 26일과 30일에 각 진행되었다. 보통 엄밀한 의미에서의 남북 연석 회의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본회의를 지칭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통설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연석 회의 본회의와 남북 지도자 협의회, 4김 회담을 모두 통틀어 '남북 연석 회의'(이른바 '남북 협상')라고 부르고 있다.

1948년 4월에 남북 협상이 벌어진 원인은 같은 해 2월에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의되었기 때문이다(1948.2.26).

오답 해설>

- ① 허정 과도 정부*에서 헌법이 개정된 것은 1960년 6월의 일이다(제3차 개헌).
*허정 과도 정부: 제1공화국 붕괴 직후인 1960년 4월 27일 구성되어 1960년 6월 15일까지 존속한 과도 정부이다(제3차 개헌 이름). 같은 해 7월 29일 총선거를 거쳐서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다.
-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제7차 개헌[유신 헌법]이 이루어진 1972년 12월 이후의 일이다.
- ④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6월의 일이다(1949.6.21). 참고로 농지 개혁법이 공포된 것은 1950년 3월 10일의 일이다.
- ⑤ 국가보안법 개정안(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이 일어난 것은 1958년 12월의 일이다(1958.12.24, 일명 '2·4 파동').

40 - 반공 포로 석방

40.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군사적 안전 보장의 입장에서 볼 때 태평양 지역의 정세 및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어떤 것인가. 태평양 지역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로 이어진다.

(나)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해 주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

- ① 좌우 합작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②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 ③ 미국 의회에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 ④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 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반공 포로가 석방되었다.

정답> ⑤

(가)에 '군사적 안전 보장의 입장에서 볼 때 태평양 지역의 정세 및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어떤 것인가. 태평양 지역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50년 1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이른바 '애치슨 선언'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애치슨 선언이란, 1950년 1월 10일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1893~1971)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래스카-일본-오키나와-필리핀 선으로 한다고 언명한 것을 말한다.

(나)에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해 주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제4조, 1953.10.1).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반공 포로가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석방된 것은 1953년 6월의 일이다(1953.6.18).

오답 해설>

- ① 좌우 합작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1946년 7월의 일이다(1946.7.25). 참고로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된 것은 같은 해 10월 7일이다.
- ②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48년 10월의 일이다(1948.10.19).
- ③ 미국 의회에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것은 1947년 3월의 일이다(1947.3.12.). 트루먼 독트린이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자의 정부 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함을 밝힌 선언이다.
- ④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된 것은 1966년 3월의 일이다(1966.3.7).

41 - 진보당 해체

41. 밑줄 그은 '선거'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 사건이 폭로되었다.
- ② 평화 통일론을 내세우던 진보당이 해체되었다.
- ③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습격하였다.
- ④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지부가 인민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 '이번 선거에 자유당, 민주당 후보 등 여러 명이 출마했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여당은 현 대통령의 3선을, 야당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주어진 사진(포스터)에서는 맨왼쪽에 조봉암[당시 무소속]이, 그 다음에 '신익희와 장면[이상 민주당]'과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맨오른쪽에는 '이승만[리승만]과 이기붕[리기붕][이상 자유당]'이 보인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는 1956년 5월에 치러진 제3대 정·부통령 선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56.5.15).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이 선전하였고, 조봉암은 이에 힘입어 (평화 통일론을 내세우며) 진보당을 창당하였다(1956.11.10).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을 구속하고, 진보당을 해체시켰다(각 1958.1/1958.2).

오답 해설>

- ①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 사건*이 폭로된 것은 1951년 1월의 일이다(1월 15일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의 해체가 결의된 것은 같은 해 4월이다(1951.4.30). *6·25 전쟁 1·4 후퇴 당시 국민 방위군의 일부 고급 장교들의 부정부패에 의해 약 9만 명의 장정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한 사건이다.
- ③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습격한 것은 1949년 6월 6일의 일이다(6·6 반민특위 습격 사건*). *경찰에 의한 반민특위 습격(1949.6.6), 국회 프락치 사건(1949년 4월 말~8월 중순) 등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 결국 1949년 7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소)시효가 8월로 앞당겨지게 되었고, 동년 9월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 특별 조사 위원회, 특별 재판부, 특별 검찰부가 해체되었다.
- ④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지부가 인민 위원회로 개편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9월부터이다(~11월). 같은 해 9월 6일 건국 준비 위원회가 조선 인민 공화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11월까지 전국 각지의 건국 준비 위원회 지방 조직[지부]들과 각종의 자생적 조직들이 전환되어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1954년 11월의 일이다(1954.11.27, 사사오입 개헌).

42 - 남북 학생 회담 요구 집회

42. 밑줄 그은 '집회'가 열린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이 사진은 남북 학생 회담을 요구하는 집회 장면입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구호를 외치며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통일을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남북 총선거에 의한 평화 통일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1948	1952	1960	1964	1972	1979
(가)	(나)	(다)	(라)	(마)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발췌 개헌	4·19 혁명	6·3 시위	10월 유신	부마 민주 항쟁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이 사진은 남북 학생 회담을 요구하는 집회 장면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당시 대학생들은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구호를 외치며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통일을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남북 총선거에 의한 평화 통일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시기에 통일 논의 [운동]이 크게 일어났는데, 위 자료는 1961년 5월 남북 학생 회담을 요구하는 집회이다(1961.5.13). 사진 속 문구는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가, 가자 北으로! 오라 南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이다.

연표에서는 1960년 4·19 혁명과 1964년 6·3 시위 사이인 '(다) 시기'에 해당한다.

43 -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

43. 다음 명령을 실행한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경제 관련 긴급 명령을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경부 고속 도로 개통 등으로 경제 발전에 힘쓰던 당시 정부는 사채에 허덕이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사채 신고를 독려하고 그 상황을 동결시켜 주었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었으나 정경 유착이 심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 ①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 ②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 ③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를 설립하였다.
- ④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임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⑤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정답> ①

'이것은 경제 관련 긴급 명령을 발표하는 사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경부 고속 도로 개통 등으로 경제 발전에 힘쓰던 당시 정부는 사채에 허덕이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사채 신고를 독려하고 그 상황을 동결시켜 주었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었으나 정경 유착이 심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위와 같은 경제 관련 긴급 명령('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 명령 제15호, 이른바 '8·3 조치')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8월의 일이다(1972.8.3). 무리한 외자 도입으로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박정희 정부가 기업이 안고 있는 사채 동결과 금리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8·3 조치'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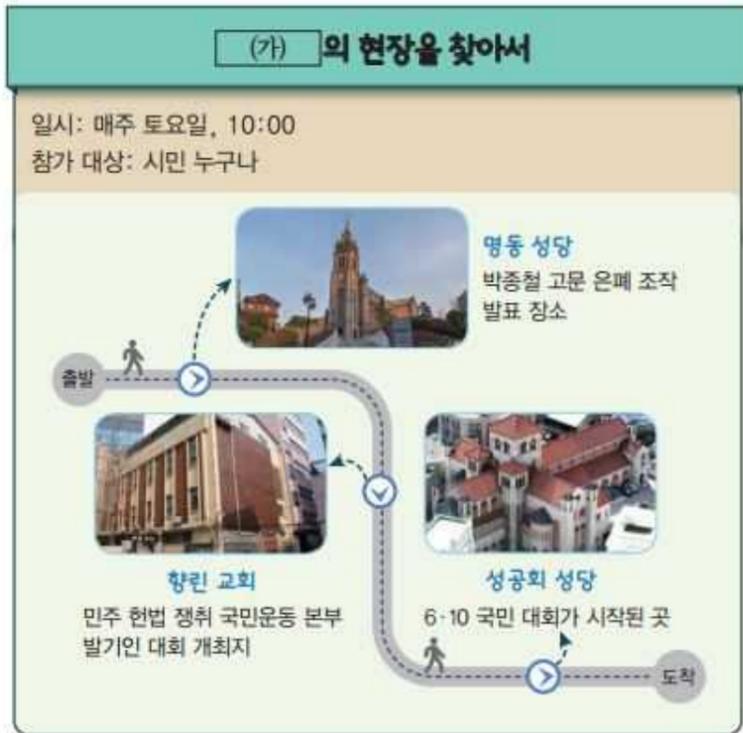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다(1972~1976).

오답 해설>

- ②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일이다(2007.6). 참고로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3월이다.
- ③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된 것은 미군정기인 1946년 3월의 일이다(~1948.3).
- ④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임금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1987.7.30).
- ⑤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의 일이다(1993.8.12).

44 - 6월 민주 항쟁

44.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 ②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③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며 시위대가 경무대로 행진하였다.
- ④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 ⑤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시위가 확산되었다.

정답> ⑤

'(가)의 현장을 찾아서'라는 제목 아래 명동 성당(박종철 고문 은폐 조작 발표 장소), 향린 교회(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 개최지), 성공회 성당(6·10 국민 대회가 시작된 곳)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1987년에 일어난 6월 민주 항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된 민주화 운동이 바로 6월 민주 항쟁이다.

오답 해설>

- ①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1980년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 ②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민주화 운동 역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2011년에 등재).
- ③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며 시위대가 경무대로 행진한 민주화 운동은 1960년의 4·19 혁명이다.
- ④ (재야인사들이)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한 것은 1976년 3월의 일이다.

45 -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45. 다음 뉴스가 보도된 시기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오늘 대통령은 경의선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도라산역을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역의 준공으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①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②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을 실현하였다.
- ③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 ④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를 교환하였다.

정답> ③

'한·미 정상, 도라산역 방문'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 대통령은 경의선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도라산역을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정부는 이 역의 준공으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1946~)(제43대)이 도라산역*을 방문한 것은 2002년 2월 20일로, 이때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해당한다(1998.2~2003.2).

*도라산역: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리 민통선 안에 있는 경의선의 최북단역이다. 경의선 복원 사업에 의해 2002년 2월 초 도라산역이 들어섰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당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이 발표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이다(1988.7.7).
- ②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이 실현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1985.9.20~22).
- ④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다(1972.11~1973.8).
- 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교환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이다(1991.12.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일명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부른다.

46 - 역사 속의 왕의 호칭

46. ㉠~㉣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역사 돋보기 **역사 속 왕의 호칭**

왕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이름을 높여 부르는 호칭을 묘호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나라를 세운 왕은 '조'를, 그 나머지는 '종'을 붙였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묘호를 쓴 왕은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다. 고려 시대는 ㉡태조만 조의 묘호가 붙여졌지만, 조선 시대에는 다양한 이유로 ㉢정조처럼 조를 붙인 왕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는 ㉣충렬왕처럼 조, 종을 붙이지 못한 왕들이 있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연산군, ㉣광해군처럼 묘호를 받지 못하고 군으로 격하되어 불린 경우도 있었다.

- ① 갑: ㉠ -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어요.
- ② 을: ㉡ - 고려 건국의 위업을 이루었어요.
- ③ 병: ㉢ - 탕평책 등 여러 개혁으로 통치 체제를 재정비했어요.
- ④ 정: ㉣ - 원 황실의 부마가 되었어요.
- ⑤ 무: ㉣ -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어요.

정답> ⑤

'역사 속 왕의 호칭'이라는 제목 아래 '왕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이름을 높여 부르는 호칭을 묘호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나라를 세운 왕은 '조(祖)'를, 그 나머지는 '종(宗)'을 붙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묘호를 쓴 왕은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다. 고려 시대에는 태조만 조의 묘호가 붙여졌지만, 조선 시대에는 다양한 이유로 정조처럼 조를 붙인 왕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는 충렬왕처럼 조, 종을 붙이지 못한 왕들이 있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연산군, 광해군처럼 묘호를 받지 못하고 군으로 격하되어 불린 경우도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왕은 (광해군이 아니라) 연산군이다(1506). 광해군이 폐위된 것은 인조반정 때이다(1623).

오답 해설>

- ① 태종 무열왕(재위 654-661, 제29대)은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적절한 의견이다.
- ② 고려 태조(재위 918-943)는 고려 건국의 위업을 이루었다. 적절한 의견이다.
- ③ 조선 정조(재위 1776-1800, 제22대)는 탕평책 등 여러 개혁으로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적절한 의견이다.
- ④ 고려 충렬왕(재위 1274-1308, 제25대)은 원 황실의 부마가 되었다. 적절한 의견이다. 태자였던 고려 원종 12년(1271)에 원에 가서 원 세조의 딸 제국대장공주와 혼인하였다.

47 - 노비

47.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나는 방호별감 김윤후입니다. 몽골군의 침입에 맞서 충주산성을 방어할 때 (가)의 신분 문서를 불태워 그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나는 군국기무처의 총재 김홍집입니다. 신분 차별 폐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가)에 관한 법을 폐지하였습니다.



- ① 신라에서 승진에 제한을 받았으며, 득난이라고도 불렸다.
- ② 고려 시대에 향, 부곡, 소에 거주하였으며,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였다.
- ③ 조선 시대에 봉수, 역졸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 ④ 조선 후기에 통청 운동으로 청요직 진출을 시도하였다.
- ⑤ 조선 순조 때 국방과 중앙 관서에 소속된 6만여 명이 해방되었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나는 방호별감 김윤후입니다. 몽골군의 침입에 맞서 충주(산)성을 방어할 때 (가)의 신분 문서를 불태워 그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몽골의 제5차 침입 시에 있었던 충주(산)성 전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253, 고려 고종 40).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나는 군국기무처의 총재 김홍집입니다. 신분 차별 폐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가)에 관한 법을 폐지하였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제1차 갑오개혁 때에 있었던 노비제 폐지의 일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4, 조선 고종 31). 이를 통해 주어진 '(가) 신분'은 노비임을 알 수 있다(천인의 일종으로 그 수가 많아 사실상 천인의 대부분을 차지).

조선 순조 때 국방과 중앙 관서에 소속된 (관노비) 6만여 명이 해당되었다(1801, 순조 원년).

오답 해설>

- ① 신라에서 승진에 제한을 받았으며, 득난(得難)이라고도 불린 신분은 6두품이다. 17관등 중 6관등 아찬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 ② 고려 시대에 향, 부곡, 소에 거주하였으며, 과중한 세금을 부담한 신분은 양민이다. 양민에는 이처럼 향, 소, 부곡 거주민과 농민(백정)이 있었다.
- ③ 조선 시대에 봉수, 역졸의 업무를 주로 담당한 신분은 양인[상민]이다. 그런데 신분은 양인인데 누구나 기피하는 고된 역에 종사한 사람들을 신랑역천(身良役賤)*이라 한다.
*신랑역천: 고려 시대 이래 봉수간(烽燧干)·염간(鹽干·진척(津尺)·화척(禾尺)·양수척(楊水尺) 등 '간'이나 '척'으로 칭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하였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밖에도 수군(水軍)·조례(皂隸)·나장(羅將)·일수(日守)·조졸(漕卒)·역졸(驛卒)·봉군(烽軍)의 칠반천역(七班賤役)도 포함되었다.
- ④ 조선 후기에 통청 운동으로 청요직 진출을 시도한 신분은 중인의 일종인 서얼이다(조선 후기 중인에는 기술직 중인도 있음). 결국 철종 2년인 1851년에 신해허통이 이루어져 서얼들의 관직 진출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철폐되었다.

48 - 세시 풍속, (삼월) 삼짇날

48. 다음 세시 풍속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이달의 세시 풍속

푸른 새잎을 밟는 날 답청절(踏靑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중삼일(重三日)은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이날에는 들에 나가 푸른 새잎을 밟는 풍습이 있어 답청절이라고 부른다. 답청의 풍습은 신윤복의 <연소답청(年少踏靑)>에 잘 나타나 있다.

- ◆ 날짜: 음력 3월 3일
- ◆ 음식: 화전, 쫄면
- ◆ 풍속: 노랑나비 날리기, 활쏘기

- ① 칠석날의 전설을 검색한다.
- ② 한식날의 의미를 파악한다.
- ③ 삼짇날의 유래를 알아본다.
- ④ 동짓날에 먹는 음식을 조사한다.
- ⑤ 단오날에 즐기는 민속놀이를 찾아본다.

정답> ③

'푸른 새잎을 밟는 날, 답청절(踏靑節)'이라는 제목 아래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중삼일(重三日)은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날에는 들에 나가 푸른 새잎을 밟는 풍습이 있어 답청절이라고 부른다. 답청의 풍습은 신윤복의 <연소답청(年少踏靑)>에 잘 나타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또 '날짜는 음력 3월 3일, 음식으로는 화전, 쫄면, 풍속으로는 노랑나비 날리기, 활쏘기'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가 가리키는 세시 풍속은, (삼월) 삼짇날임을 알 수 있다. 답청절 외에 '강남갔던제비오는날', 삼월삼짇날 등의 명칭으로도 불렸다.

오답 해설>

- ① 칠석은 매년 음력 7월 7일에 행하는 명절이다(칠월) 칠석.
- ②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양력으로는 대개 4월 5일경)에 지내는 명절이다.
- ④ 동지는 매년 음력 11월 중순에 지내는 명절이다. '작은 설'이라고도 하였다.
- ⑤ 단오는 매년 음력 5월 5일에 지내는 명절이다(오월) 단오. 우리말로 '수릿날'이라고 한다.

49 - 전남 나주의 역사적 사실

49.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답사 보고서

- ◆ 주제: 우리 고장의 역사
- ◆ 날짜: 2022년 00월 00일
- ◆ 개관
금성산과 영산강을 끼고 있는 우리 고장은 삼한 시대부터 마한의 주요 지역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였고, 후삼국 시대에는 격전지였으며,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의 의기가 드높았던 지역이다. '전라도'라는 이름은 전주와 우리 고장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 ◆ 목차
1. 마한 세력의 성장, 반남면 고분군
2. □□목(牧)의 관아 부속 건물
3.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도화선 □□역

- ①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과 항전하였다.
- ②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켰다.
- ③ 정문부가 왜군에 맞서 북관대첩을 이끌었다.
- ④ 김광제 등을 중심으로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되었다.
- ⑤ 왕건이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기 위해 차지하였다.

정답> ⑤

'답사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개관으로 '금성산과 영산강을 끼고 있는 우리 고장은 삼한 시대부터 마한의 주요 지역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였고, 후삼국 시대에는 격전지였으며,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의 의기가 드높았던 지역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전라도라는 이름은 전주와 우리 고장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또 목차에는 '1. 마한 세력의 성장, 반남면 고분군', '2. □□목(牧)의 관아 부속 건물', '3.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도화선, □□역'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가리키는 지역은 전남 나주임을 알 수 있다. 왕건이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기 위해 차지하였던 지역이 바로 전남 나주이다. 당시 나주는 후백제의 세력권으로 '금주'라는 명칭으로 불렸다(903년부터 공략하여 910년경 사실상 장악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인조(재위 1623-1649, 제16대)가 피신하여 청군과 항전한 지역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남한산성이다(1636.12~1637.1)(병자호란).
- ② 유생 출신 (의암) 유인석(1842~1915)이 의병을 일으킨 지역은 충북 제천이다(1896.1~6).
- ③ 정문부(1565~1624)가 왜군에 맞서 북관대첩을 이끈 지역은 함경도 북부인 북관 지역(경성과 길주 등)이다(1592.9~1593.2). 북관대첩은 일종의 북관 지역 수복 전투였다.
- ④ 김광제(1866~1920) 등을 중심으로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된 지역은 대구이다(1907.2~1908.7).

50 - 독도

50. (가)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1946년 1월에 작성된 연합국 최고 사령부 문서에는 제주도, 울릉도, (가)이/가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은/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



- ①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 ②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불법 점령하였다.
- ③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다.
- ④ 대한 제국이 칙령을 통해 울릉 군수가 관할하도록 하였다.
- ⑤ 1877년 태정관 문서에 일본과는 무관한 지역임이 명시되었다.

정답> ②

'1946년 1월에 작성된 연합국 최고 사령부 문서에는 제주도, 울릉도, (가)이/가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은/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독도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연합국 총사령부(최고 사령부) 훈령 제677호이다. 1946년 6월 훈령 제1033호에서도 일본 어부들이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불법 점령한 섬은 거제도이다. 거문도는 전남 여수시에 속하는 섬으로,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 사건이 있었던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 (~1887.2).

오답 해설>

- ①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한 섬은 독도이다.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일본의 막부 정부가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에 두 차례 건너갔다[첫 번째는 1693년(숙종 19)이고, 두 번째는 1696년(숙종 22)].
- ③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한 섬 역시 독도이다(1905.2). 당시 일본은 독도를 무인도로 규정하고,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 ④ 대한 제국이 칙령을 통해 울릉 군수가 관할하도록 한 섬도 독도이다(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1900.10).
- ⑤ 1877년 (일본의) 태정관 문서에 (독도는) 일본과는 무관한 지역임이 명시되었다(1877.3).

- 이 상 -